광주시, 위기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예산 128억원 투입···가정밖·학교밖 청소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광역시 최초 은둔·고립 청소년 발굴·자립까지 원스톱 지원 등 다양

광주시가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

광주시는 14일 "가정밖·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 사업 비 12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개소 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 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취업, 자립 등 다양한 맞 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과 함께 대안교육 등록기관 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

특히 취업 희망 청소년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 프 로그램, 작업장·인턴십 프로그램,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해 직업훈련과 직장 체험의 기회 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 비스 지원을 통해 684명의 학습을 지원했고, 242 명의 취업·직업훈련 자격취득을 도왔다. 또 위기 청소년 135명에게는 언어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

올해는 광역시 최초로 학업 중단 후 심리적 문제 를 겪고 있는 은둔·고립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신 설한다. 은둔・고립 청소년 조기 발굴부터 방문상 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자립까지 돕는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펼친다.

광주시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 한 지원도 이어간다. 시는 심리적 위기 청소년에 게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개소에 28억원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인 '청소년 동반자'를 운영하고, 전화로 쉽게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전화(1388)'를 24시 간 운영한다. 긴급 구조·일시보호소, 인터넷 중독 예방, 자살·자해 고위험 청소년 집중 클리닉 사업 등도 진행한다.

가정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 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6개소 (청소년 쉼터 5개소·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개소) 에 24억원을 지원하고, 가정불화와 학대, 폭력 등 으로 가출한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한다. 또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 회 복지원시설도 위탁 운영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가정밖 청소년에게 의식주 제 공, 학업 지원, 심리 상담, 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 한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2020년~2024년) 784명의 청소년이 쉼터와 회복 지원시설에 입소해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쉼터를 퇴 소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수당을 퇴소 후 5 년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2만9188명(44억원 상당)에게 무상 지원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 청소년들 이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체계적 보호 등 자립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돌봄이웃에 쌀·라면 전달

14일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주차장에서 (사)한국나눔연맹이 후원한 쌀 1000포대, 라 면 1000상자 등의 물품을 돌봄이웃과 사회복시시설에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 산하 공사·출연기관들, 민생회복·경제 활성화 총력

신년 간담회 개최…19개 기관별 비전•역점시책 등 공유

지방 소멸에 대응할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 하고 지역별 특화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전 남개발공사)에 나서는 한편, 22개 시·군의 특산자 원 활용을 촉진할 플랫폼을 구축해 5개 이상의 전 남 대표 히트 상품 개발(바이오진흥원)에 나서는 등 새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돌게 할 전남도 산하 공사·출연기관들의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19개 산하 공 사·출연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

이날 간담회는 기관별 실태와 대내외 여건 등 문 제점을 분석하고 올해 비전과 역점시책 등을 공유 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남도 공사・출연기관은 전남개발공사・전남연구 원·테크노파크·바이오진흥원·관광재단·문화재단 등 19개로, 다양한 역점시책으로 침체된 민생 회복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쏟기로 다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담양 보촌지구, 광양 덕례 ·도월지구, 화순 삼천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

마트 시티 및 중소규모 도시개발 추진 방안, 지역 특화산단 조성 방침 등을 밝혔고 테크노파크는 이 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 술인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했 다. 문화재단은 '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추 진 계획을, 관광재단은 워케이션·주류페스타·천년 사찰 세계명상관광 등의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 방 향을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 가적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도록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 'GCC 사관학교' 2기 교육생 모집

2월 24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오는 2월 24일까지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의 산실인 'GCC사관학교' 2기 교육생 14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미래 콘텐츠 산업 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세계적 콘 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GCC 사관학교 2기 교육 희망자는 GCC사관학 교 공식 누리집(https://www.gccaca.kr)을 통 해 신청하면 된다. 실감·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사 이의 전국 청년 미취업자(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 생 포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3월4일 최종 선발된다.

GCC 사관학교 2기 교육은 3월17일 개강해 아

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 된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 툰 등 4개 분야이며 온라인교육과 기본·심화·기업 연계 팀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총 948시간)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기초·심화교육 기간에 하루 최대 2만원의 교육수당, 기업 연계 팀프로젝 트 기간 매월 최대 60만원의 실습수당을 지원한다

교육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직 실무자 특강, 1대 1 지도(멘토링), GCC사관학교 페스티벌(취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 인증 라이센 스 취득, 우수 교육생 해외 연수 기회, 취·창업 지 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GCC사관학교는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 웹툰 등 4대 핵심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교과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영록 지사 "정부 온누리상품권 고집 말고 지역상품권 증액해야"

지역상품권 전통시장・상가 모두 사용…골목상권에 더 도움

대 발행 방침과 관련 지역 체감 효과가 큰 지역사랑 상품권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 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그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설 명 절을 맞아 최근 정부가 국민 물가 부담을 덜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 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유통되지만, 지역사랑상품 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모두 사 용되고 따라서 선순환 효과가 커 지역에서 정작 원 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전남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7만7000개소에 달하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은 1만여 개소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남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을 1조 원 규모로 발행했지만, 올해 국비 6500억원이 전



액 삭감돼 전남도 자체 예산 3500억원 규모로만 발행하 고 있다.

김지사는 "정부가 민생현 장에서 그토록 바라는 지역 사랑상품권을 한사코 마다 하고 온누리상품권만 고집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혹시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